

노동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pp. 131-156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이수진**

우리사회의 변동을 대표하는 현상의 하나가 저출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은 탁아시설의 부족, 육아부담 등의 이유로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과 더불어 결혼과 출산가지관의 변화로 인한 결혼연령의 상승,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자의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논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을 뿐, 결혼연기와 출산연기 등의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관점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6차조사자료를 이용, 실제로 미혼상태를 지속하거나 미혼에서 기혼으로의 결혼상태의 변화를 겪은 표본을 추출하여 미혼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 미혼에서 기혼으로 이동하게 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 취업여부와 같은 변수는 남성에게 있어서는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여성에게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가치변인 중 생활만족도변인은 남성의 결혼선택에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핵심용어 : 저출산, 결혼연기, 생활만족, 직무만족

I. 서론

최근 저출산이라는 말은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접하는 용어가 되었다.

투고일: 2005년 2월 5일, 심사의뢰일: 2월 14일, 심사완료일: 2월 28일

* 본 논문은 제6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좋은 논평과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두분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박사과정(pourtant22@hotmail.com)

2002년 합계특수출산율이 1.17을 기록하면서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의 변화로 인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상이 저출산(합계특수출산율 2000년 1.47→2003년 1.19 :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이다.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은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과 더불어 결혼연령의 상승,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자의 증가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를 논의할 때, 지금까지는 기혼여성이 출산하는 자녀수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출산 자체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의 지급을 검토하거나 혹은 출산 후의 양육지원책으로서 아동수당 지급, 보육시설의 확충, 육아휴가제도의 확산 보급 등 육아지원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에는 기혼 유배우 여성의 자녀수 결정요인 분석(변준환, 2003),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첫 출산 간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이경애, 2003),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출산 의도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용복, 2004) 등 자녀 출산 자체에 중점을 둔 연구 등이 포함되며, 두 번째 범주에는 사무직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지속 결정요인(서지원, 1997), 출산 후 취업지속의 결정요인(김지경, 2004) 등 주로 출산과 여성 취업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두 가지 범주 모두 기혼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출산을 중심축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수년간 미혼율과 비혼율은 큰 폭으로 높아졌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와 같이 미혼자의 출산율¹⁾이 극히 낮은 사회에서는 미혼화·만혼화가 출산율의 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혼화·만혼화 현상이 말할 필요도 없이 저출산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금, 그렇다면 미혼 남녀가 왜 결혼을 하지 않는가, 왜 결혼을 늦추는가 하는 원인규명에 관심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에 전국 규모의 조사²⁾을 통해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한

1) 미혼자의 출산율에 관한 공개된 공식 통계조사는 없는 실정이다.

결과, 미혼자 1,387명(남 714명, 여 673명) 중 52.3% 정도만이 가까운 장래에 결혼할 계획이 있다고 하였고, 성별로 보면 남성 55.5%와 여성 49.0%가,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52% 정도가 결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자의 50% 정도는 결혼계획이 없거나 결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혼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남녀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은 ‘결혼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서’가 35.7%로 가장 많은 반면, 여성은 ‘내가 하는 일에 더 열중하기 위해서’가 26.2%, ‘꼭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가 24.4%를 나타냈다.

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기수(2004)는 우리나라의 현재 결혼 지연과 저출산 문제는 취업의 어려움, 직장의 불안정성 증대 등 경제적인 상황의 악화에 기인하고 있어 결국 출산력의 회복은 미혼 및 기혼 남녀의 취업 및 직업안정성의 회복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높은 청년실업률과 고용불안정성의 증가 등과 맞물려 결혼선택과 노동환경과의 관계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미혼 남녀의 결혼에 관한 가치조사 등을 통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의 원인이 지적되고 있으나,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을 위한 계량적인 분석은 시도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의 시도로 미혼 남녀의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량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 논의의 기초가 되는 결혼 연기의 원인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결혼선택의 영향요인의 젠더간 격차를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저출산 논의의 중심에 있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 있어서의 결혼선택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젠더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취업률과 임금 등과 같은 노동환경 조건과 결혼선택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취업자만을 선별하여 노동환경 조건과 결혼

-
- 2) 전국가족조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4,311,807가구 중 3,500가구의 10세이상 가구 구성원 9,109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가치관, 가족형성(혼인 및 출산), 가족관계(부부관계, 노부모와의 관계, 청소년자녀와의 관계), 일상과 가족에서의 돌봄노동(어린이 돌봄, 노인 및 장애가족원 돌봄, 가정과 직장의 양립), 여가 및 건강실태 등을 조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택과의 관계와 이들 관계에서의 젠더간 격차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존 유배우 여성을 둘러싼 문제로써만 저출산의 해결점을 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혼자 특히 미혼 남성도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해결점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환경 조건과 결혼선택과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결혼을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담아두기보다는 개인이 놓여 있는 사회적 배경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국외 선행연구와 국내 선행연구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국외 선행연구는 1990년대 이후 행해진 결혼선택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를, 국내 선행연구로서는 최근의 우리나라 미혼 남녀의 결혼에 관한 의식조사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결혼선택에의 영향요인을 예측하고자 한다.

1. 국외 선행연구 검토

1990년대 이후의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선택의 규정요인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행해져 왔다. 결혼선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본인의 연령, 학력, 취업형태, 경제적 능력 등의 변수가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사회인구학적 요인(본인관련 변수와 부모관련 요인)과 가치요인으로 나누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가. 사회인구학적 요인

1) 연령

滋野(1997)에서는 연령과 연령2차항을 동시에 설명변수로 놓고 여성의 결혼선택에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연령은 결혼선택에 정(+)의 효과, 연령2차항은

부(-)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연령이 많아지면 결혼선택의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령2차항의 효과는 일정 연령을 경계로 해서 결혼 선택에의 연령의 효과는 역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28세 이후의 여성의 결혼선택의 확률이 낮아진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전국의 20~44세 여성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성의 생활의식에 관한 의식조사」로부터, 결혼 의욕의 규정요인을 검토한 釜野(2004)의 연구에서는 연령의 정(+)의 효과가 나타나 연령이 많은 사람일수록 결혼 의욕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 학력

樋口(1994), 金子(1995)에서는 여성이 결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학력의 효과가 확인되었는데, 학력이 높아질수록 결혼을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혼인가 기혼인가의 현재의 상태에 주목한 樋口(1999)의 연구에서는 중·고졸보다는 전문대졸, 대졸 이상 여성의 유배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Wong(2003)에서는 홍콩 거주 중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 시기(marital timing)의 결정요인을 연구한 결과, 학력과 경력의 획득은 결혼율을 낮춘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滋野(1994)의 연구에서는 학력은 여성의 결혼 선택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수입

24~35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노동소득과 노동소득2차항을 설명변수로 놓고 결혼선택에의 영향을 조사한 滋野(1997)의 연구에서는 노동소득은 여성의 결혼 의사결정에 유의하게 정(+)의 효과, 노동소득2차항은 여성의 결혼 의사결정에 유의하게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동소득이 증가하면 여성은 결혼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소득2차항이 부(-)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일정 수준의 소득액을 넘으면 여성의 결혼선택확률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간 노동소득이 250만엔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 증가에 따라서 결혼선택확률이 높아지지만, 연간 250만엔 이

상일 때에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게 됨이 확인되었다.

樋口(1999)의 연구에서도 수입이 많은 사람이 유배우율이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스웨덴, 일본 3국에 있어서의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결혼 시기와의 관계를 조사한 Ono(2003)에 의하면 일본은 여성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결혼하는 것에 고무적이지 않지만,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 취업형태

소득의 대리변수로서 취업형태를 설명변수로 분석한 樋口(1999)의 연구 결과, 일반기업의 정사원보다는 무직자, 자영/가족종사자, 시간제노동자의 유배우율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滋野(1997)의 분석에서는 취업형태는 결혼선택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부모관련 변수(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와의 동거)

樋口(1999)는 미혼인가 기혼인가의 결혼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생존 여부와 부모와의 동거를 설명변수로서 분석하고 있는데, 부모와의 동거는 여성의 유배우율을 낮추고, 부모의 수입이 많을수록 여성의 유배우율이 높다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부모의 생존 여부에 관해서는, 아버지의 생존은 여성의 유배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어머니의 생존은 여성의 유배우율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가족과 출산력 조사(Family and Fertility Survey)」를 이용하여 젊은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패턴을 비교한 Rusconi(2003)의 연구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결혼을 기점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비율이 높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에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독일여성의 10%, 독일 남성의 30%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양국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결혼이나 동거, 첫 자녀의 출산과 같은 가족 이벤트를 기점으로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빠른

시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한다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나. 가치변인

1) 결혼에 관한 의식관련 변수

결혼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여성일수록 결혼 의욕이 높다는 연구(釜野(2004), 긍정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에 대한 규범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을수록 초혼 연령이 빨라지게 된다고 하는(최세은 외, 2003) 연구 등이 있다.

2) 생활의식관련 변수

일에 관한 의식, 자립지향, 자기우선지향, 젠더역할관(釜野(2004), 생활설계 지향, 개인주의지향(岩間, 2004) 등의 의식에 관련한 항목을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있으나, 유의한 결과는 얻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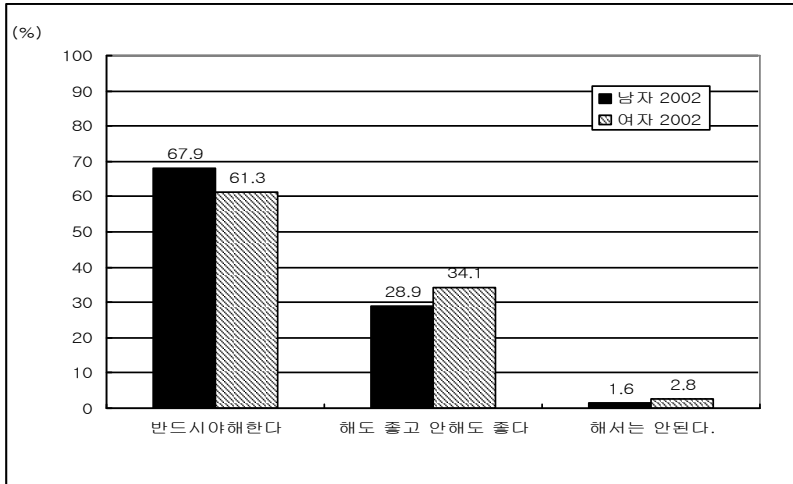
2. 국내 선행연구 검토

최근 미혼 남녀의 결혼에 관한 의식 등의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왜 만혼화·비혼화가 초래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결혼선택과 결혼에 관한 의식과의 관계를 예측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의식조사를 기초로 미혼 남녀의 결혼에 관한 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미혼 남녀의 결혼에 관한 의식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첫째 결혼의 당위성 의식 특히 평생 독신생활 추구에 대한 의식, 둘째 결혼의 이점·독신의 이점, 셋째 결혼 상대의 조건을 선정하였다. 예로 든 세 가지 항목에서 미혼 남녀의 결혼에 관한 의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과 동시에 결혼 선택과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가. 결혼에 관한 의식

<표 1>은 사회통계조사보고서(2002)의 혼인에 대한 가치관-결혼관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가 6~70%,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의견이 30% 정도로 나타났다.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의

〈표 1〉 결혼에 관한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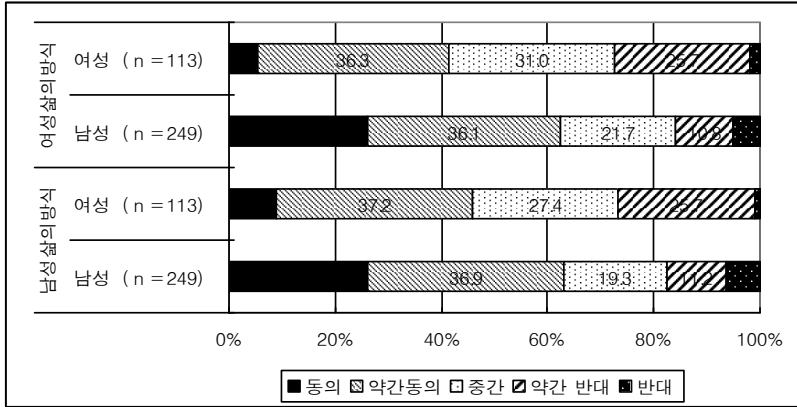
자료: 사회통계조사보고서(2002)³⁾, 통계청

식은 남녀 모두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부의 진국가족조사(2004)에 의하면, 조사대상 남성의 55.5%, 여성의 49%만이 가까운 장래에 결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한 의식차이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인데, 여자보다는 남자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혼에 대한 의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평생 독신생활 추구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F-GENS한국패널(2004)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F-GENS한국패널에서는 ‘남성이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이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의 두 문항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데, <표 2>에서 보여지듯이 남성은 남성이나 여성이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데 동의한 비율이 60%를 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여성은 남성이나 여성이 평생 독신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3) 사회통계조사는 전국 약 30,000의 표본가구 내의 가구원 약 70,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며, 매년 실시된다.

〈표 2〉 남녀의 평생 독신생활 추구에 관한 의식



자료: F-GENS 한국패널조사(2004), 오차노미즈여자대학 COE젠더연구 프론티어

여기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평생 독신생활 추구에 대해서 저항감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결과로부터 남성은 결혼에 대한 당위성 의식이 높고, 평생 독신생활 추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의식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결혼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결혼의 이점 · 독신의 이점

〈표 3〉은 F-GENS 한국패널조사(2003) 결과로부터, 결혼생활의 이점과 독신생활의 이점이 있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혼 남성의 경우에 독신의 이점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결혼의 이점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혼 여성은 독신의 이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부의 전국가족조사(2004)에서는 결혼계획과 더불어 결혼계획이 없는 이유를 묻고 있는데, 남성은 조사대상자의 35.7%가 ‘경제적인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26.2%가 ‘나의 일에 더 열중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부터 미혼 남성은 경제적인 기반이 다져지면 즉 고용상태가 안정이 되거나, 충분한 수입이 보장될 때에는 결혼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여성은 독신의 이점을 크게 인식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일에 열중하기 위해서 결혼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고용상태의 안정과 충분한 수입 보장은 여성의 결혼선택확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결혼의 이점·독신의 이점

결혼생활	이점 있다	이점 없다	독신생활	이점 있다	이점없다.
미혼 남성 (n=249)	85.9%	14.1%	미혼 남성 (n=249)	71.5%	28.5%
미혼 여성 (n=113)	78.8%	21.2%	미혼 여성 (n=113)	85.0%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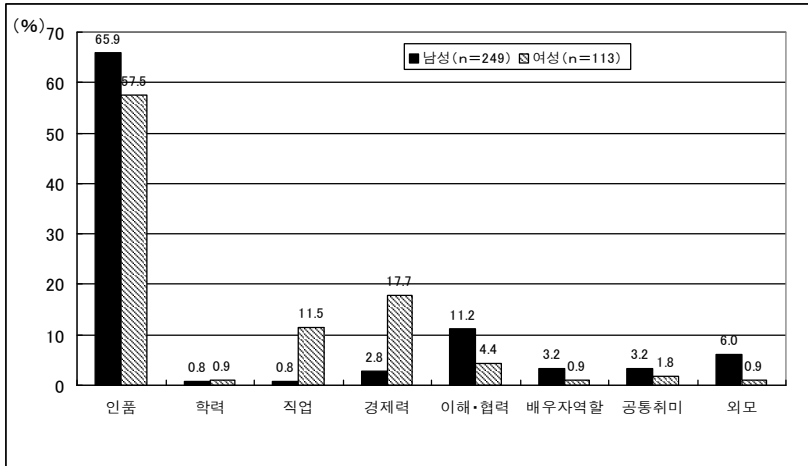
자료 : F-GENS 한국패널조사(2003), 오차노미즈여자대학 COE 젠더연구 프론티어)

다. 결혼상대의 조건

여성부의 전국가족조사(2004)에서는 여성은 결혼상대의 조건으로서 경제력과 직업(41.0%)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성격(25.9%)을 들고 있다. 남성은 성격과 사랑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들고 있다. <표 4>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F-GENS 한국패널(2003) 조사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혼상대의 조건으로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남녀 모두 인격이었다. 여성은 그 다음으로 경제력과 직업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남성은 자신의 일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상대의 용모를 중시한다고 하는 대답도 6%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원 외(2002)의 연구에서도 결혼상대의 조건으로서 성격을 1순위로 뽑은 여성은 35.5%, 남성은 33.5%였고, 남녀간의 의견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으로서는 외모와 장래 가능성으로, 외모의 경우는 남자가 6.7%인 데 반해 여자는 1.9%에 머물러 있고, 장래 가능성의 경우는 남자

4) F-GENS 한국패널조사는 한국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5~44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취업, 가족, 가계 등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5년간 지속될 예정이며, 현재 2003년, 2004년도의 조사가 실시 완료되었다.

〈표 4〉 결혼상대의 조건



자료 : F-GENS 한국패널조사(2003, 2004), 오차노미즈여자대학 COE젠더연구 프론티어

가 2.4%인데 반해 여자는 8.2%로 나타나,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의 교환조건이 성립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하고 있지 않거나 경제적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남성은 자의든 타의든 결혼선택확률이 낮아지는 반면, 여성에게 있어서 경제력 자체는 결혼선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국외의 연구 결과로부터는 연령, 학력, 수입, 취업형태 등을 결혼선택의 규정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국내의 조사 결과로부터 결혼에 대한 당위성 의식, 평생 독신생활 추구 의식과 같은 결혼에 관한 의식, 경제력 등은 남성의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사용데이터의 제약으로부터, 첫째 다수의 국외 선행연구의 조사대상자가 여성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둘째 조사의 어려움상 조사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특히 지역별 취업률, 결혼 시기에 대한 가치와 같은 지역의 정서와 문화 등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에 관한 변수의 제약, 즉 질문항목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결혼선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만족도, 직업만족도와 같은 가치변인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

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조사대상자가 남녀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서, 결혼선택에 있어서의 남녀별 차이를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전국을 조사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변수의 효과를 측정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젠더간 의식격차와 결혼선택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며, 또한 원자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치변인으로서 생활만족도관련 변인과 직무만족 변인을 들 수 있는데, 만족도변수를 생활만족도와 직업만족도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측정하고 있으므로,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족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미혼 남녀의 결혼에 관한 의식과 결혼선택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된 변수를 설명한다.

1. 연구문제 및 변수선정

가.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결혼선택(미혼지속, 결혼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녀별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1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결혼선택(미혼지속, 결혼상태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1-2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결혼선택(미혼지속, 결혼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남녀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 가치변인 중 결혼선택(미혼지속, 결혼상태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2-1 생활만족(여가생활만족, 주거환경만족, 가족관계만족을 포함)은 결혼선

택(미혼지속, 결혼상태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 2-2 직무만족(보수, 취업안정성, 직무내용, 직무환경을 포함)은 결혼선택(미혼지속, 결혼상태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 2-3 가치변인 중 결혼선택(미혼지속, 결혼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남녀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취업자에 있어서 결혼 선택(미혼지속, 결혼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남녀별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나. 변수 측정

1) 종속변수의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종속변수는 결혼상태 변화이다. 미혼지속자 0값, 미혼에서 기혼으로 결혼상태가 변화한 자 1값으로 하는 변수를 취하였다.

2) 독립변수의 선정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이용하게 될 자료분석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선정된 독립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연령은 만연령, 연령의 2차항, 출생코호트 등 세 가지 형태로 각각 분석에 이용된다. 학력은 범주화하여 더미변수의 형태를 취하였다. 수입은 수입, 수입의 2차항의 두가지 형태로 분석에 이용된다. 취업에 관한 변수는 취업 여부, 전일제와 시간제, 종사상의 지위 등을 각각 범주화하여 더미변수의 형태를 취하였다. 선행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변수로서 본 연구에서 단독으로 채용한 변수는 거주지역과 만족도 관련 가치변인이다. 거주지역은 서울, 경기, 광역도시, 지방도시로 나누어 더미변수의 형태를 취하였다. 생활만족도는 3영역의 생활만족변인의 값을 더해서 연속변수 형태를 취하고, 직무만족도는 4영역의 직무만족변인의 값을 더해서 연속변수 형태를 취하였다. 가치변인 중에서 결혼에 관한 의식에 대한 변수는 원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분석에 이용할 수 없었다.

〈표 5〉 변수의 측정

항 목		자료구성과 구체적 지표		
종속 변인	결혼상태 변화	미혼지속*	미혼지속(n년도 미혼, n+1년 미혼)=0	
		결혼상태 변화	결혼상태 변화(n년도 미혼, n+1년 기혼)=1	
독립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본인의 학력*	(중·고졸=0) 중졸 미만=1, 대학 이상=1	
		거주지역*	(광역시=0) 서울=1, 경기=1, 지방도시=1	
		출생코호트*	(71년~79년 출생=0) ~70년 출생=1, 80년~ 출생=1	
		취업 유무*	(미취업자=0), 취업자=1	
		종사상의 지위*	(일용직=0), 상용직=1, 임시직=1	
		근무시간 형태*	(시간제=0), 전일제=1	
		본인 n년도 수입		
		본인 n년도 수입제공		
		본인연령		
		본인연령제공		
	가치변인	생활만족도	3점에서 15점까지의 값을 가짐	
		여가만족	매우 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주거환경 만족	매우 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가족관계 만족	매우 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직무만족	4점에서 20점까지의 값을 가짐	
		직무만족 (보수)	매우 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직무만족 (취업안정성)	매우 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직무만족 (적부내용)	매우 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직무만족 (근무환경)	매우 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주: *은 더미변수임.

2. 분석방법

가. 분석자료

실증분석을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1~6차에 걸친 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가구소득과 소비의 상태와 변화 과정에 대한 정보와 개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노동시장 이동 과정, 결혼상태, 생활만족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한국노동연구원, 1999) 1998년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총 5,000가구의 15세 이상 모든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이래 현재 2003년까지 6차에 걸친 조사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혼상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1단계 : n년도의 결혼상태가 미혼이었던 표본 추출

2단계 : n+1년도의 결혼상태가 미혼이거나 기혼인 자를 추출

3단계 : 1단계+2단계의 표본을 개인고유번호를 기준으로 통합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과정을 5차례 반복하여, 1차부터 6차까지의 데이터를 풀링하였다.

각 과정에서 추출된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1,792명이 추출되었으나 학교이수 여부가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상태의 표본을 제외, 18세 이상 남녀 표본을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6,111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6〉 표본추출 과정

		1~2차	2~3차	3~4차	4~5차	5~6차
표본수		1286	1227	1076	1234	1288
성 별	남 자	683(53.1)	660(53.8)	551(51.2)	651(52.8)	693(53.8)
	여 자	603(46.9)	567(46.2)	525(48.8)	583(47.2)	595(46.2)
연 령		25.80(5.41)	26.22(5.86)	26.56(6.12)	26.53(6.00)	26.97(5.82)
학 력	중졸 미만	28(2.2)	28(2.3)	28(2.6)	26(2.1)	24(1.9)
	중·고졸	763(59.3)	729(59.4)	593(55.1)	656(53.2)	622(48.3)
	대졸 이상	495(38.5)	470(38.3)	455(42.3)	552(44.7)	642(49.8)
거주 지역	서 울	392(30.5)	359(29.3)	288(26.8)	367(29.7)	374(29.0)
	광역시	406(31.6)	408(33.3)	361(33.6)	406(32.9)	435(33.8)
	경 기	202(15.7)	190(15.5)	176(16.4)	184(14.9)	191(14.8)
	지방도시	286(22.2)	270(22.0)	251(23.3)	277(22.4)	288(22.4)
취업 유무	임 금	729(56.7)	745(60.7)	662(61.5)	770(62.4)	842(65.4)
	비임금	92(7.2)	65(5.3)	56(5.2)	64(5.2)	67(5.2)
	가족종사자	0(0.0)	27(2.2)	18(1.7)	18(1.5)	18(1.4)
	미취업	465(36.2)	390(31.8)	340(31.6)	382(31.0)	361(28.0)
종사상 지위	상용직	636(87.2)	605(82.2)	566(77.4)	655(77.6)	723(78.5)
	임시직	59(8.2)	98(13.3)	65(8.9)	75(8.9)	87(9.4)
	일용직	33(4.5)	33(4.5)	27(3.7)	36(4.3)	33(3.6)
	고용주	-	-	58(7.9)	64(7.6)	61(6.6)
	무 급	-	-	15(2.1)	14(1.7)	17(1.8)
	가족종사	-	-	15(2.1)	14(1.7)	17(1.8)
근무시간 형태	시간제	66(9.1)	36(4.3)	32(4.9)	46(6.0)	39(4.7)
	전일제	662(90.9)	793(95.7)	626(95.1)	715(94.0)	798(95.3)
생활만족도		2.85(0.84)	2.92(0.76)	3.01(0.63)	3.04(0.62)	3.52(0.65)
여가만족도		2.79(0.89)	2.76(0.84)	2.80(0.76)	2.84(0.74)	2.91(0.74)
주거환경만족도		2.98(0.86)	3.03(0.76)	3.03(0.70)	3.06(0.73)	3.12(0.76)
가족관계만족도		3.58(0.81)	3.50(0.69)	3.48(0.66)	3.47(0.63)	3.52(0.65)
직무만족·보수		2.52(0.99)	2.68(0.82)	2.66(0.80)	2.67(0.76)	2.77(0.72)
직무만족·취업안정		3.02(1.06)	3.04(0.85)	3.09(0.77)	3.08(0.75)	3.21(0.69)
직무만족·직무내용		3.30(0.93)	3.31(0.74)	3.30(0.68)	3.28(0.67)	3.36(0.68)
직무만족·근무환경		3.11(0.98)	3.18(0.77)	3.17(0.75)	3.13(0.69)	3.24(0.66)

자료: 한국노동패널 1~6차 조사.

IV. 결과해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결혼상태 변화

〈표 7〉 조사대상자의 결혼상태 변화

	결혼변화		전 체
	미혼지속	기 혼	
남 자	3033(93.7%)	205(6.3%)	3238(100%)
여 자	2694(93.8%)	179(6.2%)	2873(100%)
전 체	5727(93.7%)	384(6.3%)	6111(100%)

자료: 한국노동패널 1~6차 조사.

2. 추정결과

가.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녀별 차이가 있는가

이하에서는 어떤 요인이 미혼상태를 지속하게 하는가, 미혼에서 기혼으로 결혼상태를 변화하게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미혼지속자를 0값, 미혼에서 기혼으로 결혼상태가 변화한 자를 1값으로 한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프로빗 분석의 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젠더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남성 표본과 여성 표본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은 남성의 결혼선택의 영향요인을, <표 9>는 여성의 결혼선택의 영향요인에 대한 프로빗 분석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형 2는 가치변인 중 생활만족도변인을 추가한 모델이다.

첫 번째, 학력은 남성에서만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있어서는 모형 1, 모형 2 모두에서 $p < .01$ 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문대졸보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결혼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성과는 달리 여성에 있어서의 학력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고학력일수록 결혼선택확률이 낮아진다고 하는 선행연구(樋口 1994; 1995 金子)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거주지역은 남녀 모두에게서 결혼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도시보다는 지방도시에 거주할수록 남녀 모두 결혼선택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 지역과 광역도시는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 취업 여부는 남성에서만 두드러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성 미취업자의 경우 남성 취업자보다 결혼을 선택할 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여성에 있어서는 취업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표 8〉 남성의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1	모형 2 (생활만족도추가)
상수항		-4.2736(0.82)***	-3.8805(0.84)***
본인의 학력	고졸미만	0.0024(0.10)	0.0158(0.10)
	전문대졸	-	-
	대졸이상	0.3738(0.11)***	0.3392(0.11)***
거주지역	서울	-0.0137(0.09)	0.0219(0.09)
	경기	0.0886(0.11)	0.0915(0.11)
	광역도시	-	-
	지방도시	0.3310(0.09)***	0.3184(0.09)***
취업 여부	취업자	-	-
	미취업자	-0.3748(0.10)***	-0.3452(0.11)***
연령		0.1615(0.05)***	0.1668(0.05)***
연령제곱		-0.0023(0.00)***	-0.0023(0.00)***
생활만족도 (여가만족+주거환경만족 +가족관계만족)			-0.0606(0.02)***
Log Likelihood		-689.34467	-684.8694

주: 표본수는 2,830개(남성 표본 총 3,238개 중 취업 여부 정보가 누락된 표본은 제외됨)

***p<0.01, **p<0.05,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 1~6차 조사.

미치지 않았다5).

넷째, 연령은 남녀 모두의 결혼선택에 큰 영향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의 증가는 모형 1, 모형 2 모두에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결혼을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2차항도 모형 1, 모형 2 모두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느 일정 연령이 되면 연령이 증가해도 결혼선택확률이 높아지지 않음을 의미한다6).

<표 9> 여성의 결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1	모형 2 (생활만족도추가)
상수항		-8.5130(1.10)***	-8.5395(1.12)***
본인의 학력	고졸 미만	0.0150(0.10)	0.0127(0.10)
	전문대졸 대졸 이상	-	-
거주지역	서울	-0.1645(0.10)	-0.1619(0.11)
	경기 광역시	-0.0973(0.13)	-0.0978(0.13)
	지방도시	-	-
취업 여부	취업자	0.2509(0.10)**	0.2517(0.11)**
	미취업자	-	-
연령		-0.0484(0.10)	-0.0465(0.10)
연령제곱		0.4703(0.08)***	0.4711(0.08)***
생활만족도 (여가만족+주거환경만족 +가족관계만족)		-0.0074(0.00)***	-0.0074(0.00)***
Log Likelihood		-557.4751	-556.9434

주: 표본수는 2,509개(여성 표본 총 2,873개 중 취업 여부 정보가 누락된 표본은 제외됨)

*** $p < 0.01$, ** $p < 0.05$, * $p < 0.1$

자료: 한국노동패널 1~6차 조사.

- 5) <표 8>의 모형에, 임금과 임금제곱 각각 독립변수로서 추가해서 분석한 결과, 공선성의 문제로 인해, 취업 여부는 분석의 모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임금과 임금제곱은 각각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결혼선택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임금과 임금제곱을 동시에 하나의 모델에 추가할 경우,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 6) 위의 제시된 모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가령효과와 더불어 시대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출생코호트를 ~70년 출생, 71~79년 출생, 80년-출생 3개의 코호트로 나누어 결혼선택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p < 0.05$ 수준에서, 여성은 $p < 0.1$ 수준에서 80년대 이후 출생 코호트일수록 결혼선택확률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생활만족도가 결혼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여가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 가족관계만족을 하나로 합쳐 만든 생활 전반에 관한 만족도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남성에서만 생활만족도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남성에 있어서는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선택확률이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에 있어서는 생활만족도 등의 가치변인은 결혼선택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나. 취업 여부에 따른 결혼선택에의 영향요인

다음으로는 이미 젠더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취업률과 임금 등과 같은 노동환경 조건과 결혼선택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취업 유무에 따라 표본을 나누고, 취업자를 대상으로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10>과 같다. 모형 1에서는 사회인구학적변인과 가치변인 중 직무만족변인을, 모형 2에는 모형 1에서의 직무만족 대신에 생활만족도 추가, 모형 3에서는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을 설명변수로서 동시에 추가한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남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학력의 효과는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두에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전문대졸의 학력보다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질수록 결혼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성 취업자에서는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주지역은 남성 취업자에 있어서는 광역도시와 지방도시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광역도시 거주보다는 지방도시에 거주할수록 결혼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여성 취업자에 있어서는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성 취업자는 광역도시에 거주하기보다는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취업 여성일수록 결혼선택확률이 낮아지

7) 위의 제시된 모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거의 입주 형태에서 자가인지 아닌지에 따른 결혼선택에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주거의 입주 형태는 결혼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남성 취업자의 결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1 (직무만족)	모형 2 (생활만족도)	모형 3 (직무만족+생활만족)
상수항		-3.2206(0.92)***	-3.1386(0.92)***	-3.-532(0.93)***
본인의 학력	고졸 미만	-0.0083(0.11)	-0.0160(0.11)	-0.0122(0.11)
	전문대졸	-	-	-
	대졸 이상	0.3602(0.12)***	0.3412(0.12)***	0.3428(0.12)***
거주 지역	서울	-0.0401(0.10)	-0.0189(0.10)	-0.0174(0.10)
	경기	0.1013(0.12)	0.0950(0.12)	0.1069(0.12)
	광역시	-	-	-
	지방도시	0.3094(0.10)***	0.3005(0.11)***	0.2991(0.11)***
연령		0.1064(0.05)*	0.1124(0.05)*	0.1132(0.05)*
연령제곱		-0.0014(0.00)*	-0.0015(0.00)*	-0.0015(0.00)*
임금		0.0014	0.0015(0.00)	0.0012(0.00)
임금제곱		4.52e-08 (4.18e-06)	-2.79e-07 (4.14e-06)	2.68e-07 (4.20e-06)
직무만족도 (보수만족+취업 안정성+직무내용+근 무환경)		-0.0267(0.02)		-0.0097(0.02)
생활만족도 (여가만족+주거환경+ 가족관계)			-0.0607(0.25)**	-0.0560(0.02)**
Log Likelihood		-578.2214	-576.7175	

주: 표본수는 2,105개

*** $p < 0.01$, ** $p < 0.05$, * $p < 0.1$

자료: 한국노동패널 1~6차 조사.

는 반면, 지방도시에 거주할수록 결혼선택확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연령의 증가는 남성 취업자 및 여성 취업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로서, 연령이 많아지면 결혼선택확률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樋口 1994; 金子 1995; 滋野 1997)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보수만족, 취업안정성만족, 직무내용만족, 근무환경만족을 합쳐서 만든 직무만족도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남성 취업자와 여성 취업자 모두에게서 직무만족은 결혼선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⁸⁾. 생활만족을 추가한 모형 2에서, 생활만족도는 남성취업자의 결혼 선택에는 부(-)의 영향을, 여성 취업자의 결혼 선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취업자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선택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여성 취업자의 결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1 (직무만족)	모형 2 (생활만족도)	모형 3 (직무만족+생활만족)
상수항		-9.1634(1.33)***	-8.8526(0.11)	-9.1785(1.33)***
본인의 학력	고졸 미만	-0.0618(0.11)	-0.0656(0.12)	-0.0627(0.11)
	전문대졸	-	-	-
	대졸 이상	-0.1246(0.12)	-0.1256(0.12)	-0.1226(0.12)
거주지역	서울	-0.1828(0.12)	-0.1681(0.12)	-0.1779(0.12)
	경기	-0.2746(0.15)*	-0.2628(0.15)*	-0.2747(0.15)*
	광역시	-	-	-
	지방도시	0.2621(0.12)**	0.2582(0.12)**	0.2621(0.12)**
연령		0.4721(0.09)***	0.4655(0.08)***	0.4732(0.09)***
연령제곱		-0.0072(0.00)***	-0.0071(0.00)***	-0.0072(0.01)***
임금		0.0070(0.00) ⁹⁾	0.0061(0.00)	0.0070(0.00)
임금제곱		-0.0000(0.00)	-0.0000(0.00)	-0.0000(0.00)
직무만족도 (보수만족+취업 안정성+직무내용+ 근무환경)		0.0237(0.02)		0.0235(0.02)
생활만족도 (여가만족+주거환경 +가족관계)			0.0108(0.02)	0.0001(0.03)
Log Likelihood		-429.5444	-429.9868	-429.2002

주: 표본수는 1,908개

***p<0.01, **p<0.05,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 1~6차 조사.

- 8) 위의 제시된 모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취업 안정성과 결혼선택과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취업안정성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서 종사상의 지위를 상용직과 그의(임시직, 일용직, 고영주, 가족종사자)로 나누어 모형에 포함시켜 본 결과, 취업안정성은 취업자 남녀 모두에 있어서 결혼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9) <표 9>와 <표 10> 모형에서의 독립변수 중에서 임금제곱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임금은 p<0.1 수준에서 남성 취업자의 결혼선택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임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섯째, 임금과 임금2차항 등의 취업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결혼선택에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젠더격차를 확인하였다. 또한 청년실업을 증가 등과 같은 사회경제 현상과의 관계를 염두해 두면서 취업 여부의 효과, 취업자의 소득, 직무만족 등의 취업안정성과 관련된 변수의 효과도 검증하였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도 드러났던 바와 같이, 연령은 남녀 모두의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의 연령의 영향은 다른 어떤 변인보다도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거주지역은 여성 표본에서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취업자의 경우 지방도시 거주 여성들이 광역도시 거주 여성에 비해 결혼선택확률이 높다는 것은, 거주지역에 따른 취업접근 용이성과의 상호관련성이나 결혼 시기나 결혼에 대한 지역문화와 가치를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셋째, 취업자에 있어서 예상과는 달리 임금과 임금2차항, 직무만족이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서 살펴본 미혼 남성이 결혼계획이 없는 이유로서 ‘경제적인 기반이 부족해서’라고 하는 응답과 반드시 상응되는 결과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넷째, 생활만족도가 남성의 결혼 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면 남성이 결혼을 선택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결혼 성립으로 인해 남성이 우위를 점유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견이지만, 본 연구에서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남성에게 있어서의 결혼이 가지는 의미를 재고할 필요성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라고 보여진다.

저출산 논의의 중심이 출산 기피와 출생아수의 감소 등에서 이제는 미혼화·만혼화·비혼화 등으로 인한 혼인을 감소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최

근 혼인을 감소의 원인이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취업여부가 남성의 결혼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결혼선택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저출산 논의의 한가운데에 놓인 혼인을 저하라는 과제를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담아 두기 보다는 개인이 놓여 있는 사회적 배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점은, 결혼선택에의 영향요인의 젠더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혼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의 경제적 생산자의 역할에 대한 남녀의 인식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미취업 남성의 결혼선택확률이 낮다는 점은 미취업 남성은 경제적 생산자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결혼선택의 의사결정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남녀 모두의 인식은 여전히 남성에게 경제적 생산자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인의 가치관을 캠페인을 통해 단시간에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저출산에 대한 보다 거시적이고 폭넓은 해결책으로서 건전한 가족가치,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성평등한 가치를 추구해 내기 위한 문화 보급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 이동원 외. 『한국가족의 현주소』 학지사, (2002)
 여성부. 『「전국가족조사」에 따른 한국가족의 현실과 정책전망.』 심포지엄 자료집, (2004)
 최세은·옥선화. 「30대 기혼남녀의 초혼연령 결정요인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8권 1호 (2003) pp.53~73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00), (2003)

- 岩間曉子. 「既婚男女の出産意欲にみられる構造」. 目黒依子・西岡八郎 編. 『少子化のジェンダー分析』. 勁草書房, (2004) pp.124~149
- 釜野さおり. 「獨身女性の結婚意欲と出産意欲」. 目黒依子・西岡八郎 編. 『少子化のジェンダー分析』. 勁草書房, (2004) pp.107~123
- 金子隆一. 「わが國女子コーホート晩婚化の要因について一平均初婚年齢差の過程・要因分析」. 『人口問題研究』 522卷, (1995)
- 滋野由紀子・大日康史. 「女性の結婚選擇と就業選擇に關する一考察」. 『家計經濟研究』 36号. (1997) pp.61~71
- 樋口美雄. 「育児休業制度の實証分析」. 社會保障研究所 編. 『現代家族と社會保障』. 東京大學出版部, (1994)
- _____・阿部正浩. 「經濟變動と女性の結婚・出生・就業のタイミング」. 樋口美雄・岩田正美 編. 『パネルデータからみた現代女性』. 東洋經濟新報社, (1999) pp.25~65¹⁰⁾
- Ono, H. “Women's Economics Standing, Marriage Timing, and Cross-National Contexts of Gender.”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65(2). (2003) pp.275~286
- Rusconi, A. “Different Pathways out of Parental Home: A Comparison of West Germany and Ital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5(4). (2004) pp.627~649
- Wong, O. M. H. “Postponement or Abandonment of Marriage? Evidence from Hong Kong.”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4(4). (2003) pp.531~554

10) 일본어 문헌은 일본식 표기순에 따라 나열하였다

Determinants of Marriage Selection
- Focused on the gender differences -

Lee, Su Jin

Korean society can be characterized by its rapid changes in many aspects. One of the phenomenon of change is fertility decline. Low fertility in Korea has a close relation to social aspects(lack of child care service, burden of child care, increases for educational expenses) and private aspects(postponement of marriage, postponement of childbirth, and changes of values). Up to now, discussion of low fertilit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social aspects. The previous studies lacked personal factors which underlie the low fertility rate, like changes of values and postponement of marri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variables which make their influences on the marriage selection and examine how these variables are differed by gender. In this study, not only 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al attainment etc, but also individual value variables such as life stisfaction, job satisfaction,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hence this study useful to explain the postponement of marriage.

The Data Used from the KLIPS conducted by Korea Labor Institute.

Keywords: low fertility, postponement of marriage, life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